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박차

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필요성·최적 모델안 제시 등 논의
내년 1월 최종보고회 통해 대상지 선정...농업 경쟁력 강화 등 기대

정읍시가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열린 보고회에서

는 스마트팜 지구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용역에서는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필요성·국내 유사사례 분석 ▲최적 모델안 제시 ▲사업 대상지 입지·기반시설 적정성 검토 ▲국가 공모사업 연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매입(25ha), 임대형·분양형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스마트APC센터, 가공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청년농 유입과 지역 농업의 첨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수립을 거쳐 2026년 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스마트팜 지구 조성은 정읍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11일 정읍시청에서 이학수(가운데) 시장 주재로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고창군 등 호남 서해안 5개 시·군 ‘서해안철도’ 구축 힘 모은다

5개 시군 협의회 공동 대응
정부에 구축계획 반영 설득

고창군을 비롯해 영광군, 군산시, 부안군, 함평군 등 서해안 5개 시·군이 ‘서해안철도’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고창군 등에 따르면 ‘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가 지난 11일 영광군청에서 열려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건설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시군의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공동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시설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서해안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서해안 지역을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드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5개 시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국화와



지난 11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뜻을 모은 심덕섭(왼쪽 두번째) 고창군수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정부에 의지를 전달하고,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해안철도는 군산 새만금에서 목표를 잇는 철도 노선으로 전북과 전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노선에 반영되면 서

해안권 관광, 물류,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간담회와 공동 용역, 정책 건의, 범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농업인 교육’ 설문조사 실시

다음달 15일까지...농업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용

남원시가 2026년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농업인 및 귀농 귀촌인의 관심 분야, 영농 애로사항, 희망 교육 주제 및 품목 등을 파악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시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온라인 네이버폼 ▲서면 작성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농업인 단체를 통한 배부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도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연말까지 편성,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제1회 고창군 청년상’에 주지은·이동일씨

고창군은 최근 청년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회 고창군 청년상’ 수상자로 청년기업가 분야 주지은(36·여)씨와 봉사 분야 이동일(42)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지은 씨는 귀농 후 ‘질마재푸드영농조합’을 설립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과자와 가공식품을 개발·유통하며 연 매출 28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 지역 청년 창업 멘토링과 판로 개척 활동을 통해 청년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동일 씨는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나온 이로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재해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방역 및 생필품 나눔 활동으로 군민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제1회 청년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2025 고창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주지은 씨 이동일 씨

“12대 안전수칙 지키자”...정읍시, 산업현장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안전난간 설치·보호구 착용 등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과 착용,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

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폭염 대응을 위한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 준수는 물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청 중대재해예방팀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라며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사업장 안전지킴이 제도’를 현장에 적극 접목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10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하세요”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을 막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을 막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정했다. 이 기간에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등록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동물 등록 제도는 소유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한편,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 사항이 달라질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